

“국토부·지자체 함께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에 만전”

수도권 3개 지자체 부단체장·경찰청 협의…

-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4일(목) 10시 수도권 교통본부에서 수도권 3개 지자체 부단체장, 경찰청 관계자 등과 함께 회의를 열고, 개학에 맞춰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을 위한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.
- 여 차관은 좌석제 대책 시행 첫 날 이용객 수요패턴 예측 미흡 등 준비부족 등으로 다소 혼란은 있었지만, 점차 안정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,
 - 이용 수요가 증가하는 개학에 대비하여 세밀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충분한 공급력 확보, 서울도심 교통 혼잡 완화 방안, 교통 수단간 연계 등 지자체별로 계획 중인 대책이 차질 없이 준비 되도록 독려하였으며,
 - 시도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수립된 계획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현재의 안정화된 상황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.
- 또한 대책 시행 첫날(7.16) 혼란의 원인이 홍보부족임을 지적하면서,
 - 현재 추진 중인 해당 노선별 증차현황 및 배차간격 등이 지자체 홈페이지·포털사이트·SNS·스마트폰 어플 등 가용한 모든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,
 - 정류소 내 홍보물 부착, 버스 운행 안내시스템(BIT) 연계, 현장 홍보 및 안내요원 배치 등에 대한 준비도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하였다.

2014. 8. 14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□ 개 요

- 일 시 : 2014. 8. 14(목) 10:00~11:00
- 장 소 : 수도권교통본부 대회의실(중구 소월로 10, 단암빌딩 21층)
- 참석대상 : 국토부 제2차관, 서울·인천·경기 부단체장, 경찰청 교통국장
- 회의내용 : 광역버스 좌석제 안정화 관련 대책 논의 등

□ 세부일정

진행일정	세부내용	비 고
10:00~10:05	• 모두말씀	국토부 제2차관
10:05~10:15	• 경과보고	대중교통과장
10:15~10:55	• 보안방안 논의	
10:55~11:00	• 마무리 말씀	국토부 제2차관

* 모두 말씀까지 취재가능